



스포츠 포커스

광주시 유도대표



우태규 광주유도협회 전무이사(맨오른쪽)를 비롯한 광주체육고 감독,코치, 선수들이 2009년 광주시 유도 발전을 위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체육고 및 체육중 선수들이 전력향상을 위한 합동훈련을 하며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

내년 광주 유도 부활 한판승 기대

지난 10일 제주도 한라체육관. 2009년부터 국제대회로 바뀌는 제8회 탐라기 전국 유도대회 여자고등부 52kg이하 결선전. 광주체육고 김유라가 결선전에서 확고한 차민지를 안다리걸기 유효승으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확정지었다.

이때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하던 우태규(42·광주체육고-용인대)광주유도협회 전무이사가 "유라야! 아이고 이쁜놈"을 외치며 경기장으로 뛰어 들었고, 장내 아나운서는 기뻐하는 우 전무에게 "광주유도협회 우 전무님 기쁜 것은 알겠는데 경기장에서 나오시죠"라는 반 농담조 멘트로 한라체육관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0.1에 가까운 거구를 비호처럼 날려 김유라 선수에게 달려간 우 전무의 기쁨이 이렇게 남다른데 이유가 있다.

광주 유도는 전국 최고의 여고부와 중상위권의 중·고등학교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학과 실업팀이 없어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졸군 타 시·도 실업팀에서 뛰는 선수를 데려와 경기를 치르고 있다. '한판승의 사나이' 이원희가 2년 연속 광주대표로 출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이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들이 대학과 실업팀이 없기 때문에 타 시·도에 진출해 있다가 광주시 유도협회의 부름을 받고 다시 광주대표로 뛰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니 우 전무는 전국대회 때 게임 게임마다 피가 마른다. 하여 어린 선수들이 고교에서 성적

내더라도 고향팀에서 뛰지 못하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운동에 등한시 할까하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던 차에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김유라가 멋지게 금메달을 따내자 우 전무가 기쁨을 감추지 못한 것이다.

광주유도는 지난 10여년 전만해도 전국 최강의 명성을 자랑했다. 그동안 광주 유도 협회가 내홍을 겪으면서 단합을 이뤄내지

다. 하지만 문산중과 문성고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어 광주체육고 중·고 선수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대학부와 실업팀이 단 한개도 없어 고교를 졸업한 선수는 모두 타 시·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가운데 광주체육고는 여고부에서 전국 최강의 명성을 지키고 있다. 이번 탐라기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유라(-52kg), 이가

진 유도 엘리트들이다. 코치진이 모두 모교 선·후배기 때문에 선수들은 게으름을 피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운동 시간 외에는 선배로서 어려움을 함께 해줘 광주체육고 유도부의 실력은 일취월장하고 있다.

광주체육고 선수들은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강한 목표를 갖고 있으며 모교를 빛낸 선수들을 닮고 싶어한다. 정호현 국가대표 감독과 윤용발 씨 등이 광주체육고 출신 대표적 선수다.

김기중 감독은 "실업팀 선수들을 제외한 광주유도 선수들은 광주체육고에서 거의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며 "코치진이 모두 고교 선후배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한 가지라도 더 지도하려고 노력하고 선수들대 선배들과 맘을 풀리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전무는 내심 2009년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시체육회가 초등부 1개팀 창단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비록 초등 1개팀이지만 꿈나무들이 자라야만 명맥을 유지하고 좋은 선수를 연계 육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학과 시청이나 구청, 실업팀만 갖춰진다면 금상첨화다. 물론 경제가 어려워 힘든 실정이지만 광주 유도인의 열원과 뜻을 모아 강력히 추진 할 계획이다.

광주 유도체는 2009년 새로운 팀 창단과 함께 부흥의 한 판승을 준비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협회 불협화음 견어내고 정상 재도전 결의 초·중·고 5개팀 분전으로 겨우 명맥 유지 실업·대학팀 창단 시급...인재 유출 막아야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지만 지난 2005년 우태규 전무이사가 새로 부임하면서 흠어진 유도인의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예전의 영광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다.

우 전무는 "사실 그동안 광주유도협회가 내홍을 겪으면서 실망을 시켜드렸지만 광주 유도인들이 심기일전 옛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초등1개, 중하 2개, 고등부 2개의 적박한 현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광주유도는 현재 오정초, 문산중, 광주체육중, 문성고와 광주체육고 팀이 있

희(-57kg), 박난희(-70kg) 등이 주축이다. 이들은 탐라기 우승으로 2009년 홍콩오픈 선수권대회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남자고등부는 아직 전국 정상권은 아니다. 하지만 광주체육고(1990년 졸업)-용인대 출신 김기중(42) 감독이 10년전 광주체육고에 부임한 후 전국체육대회 금메달리스트들을 배출하며 전국 정상을 위해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신대철 코치도 역시 광주체육고 선배다. 광주체육중 코치인 민경희(여)·설명환코치도 모두 광주체육고를 졸업하고 용인대를 거

작은 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p>개업·성업 안내</p> <p>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p>	<p>동천루</p> <p>동구 학동동 구)배고프다리엔 세트1.탕수육+자장2+음료=13,000원 세트2.탕수육+짬뽕2+음료=14,000원 ☎(062)224-3051</p>	<p>웅진코웨이</p> <p>북구 두암동 삼성출판사 맞은편 경주은행 2층 공기청정기,이온수기,비데,연수기,음식물처리기 설치및 펠더교환 A/S무상서비스 ☎(062)269-7012-3</p>	<p>갈비어천가</p> <p>북구 문흥동 광주은행빌딩 문흥2동시무스맞은편 돼지갈비,매운탕김치,삼겹살,육회,매운탕갈비 양돈비빔밥,육회비빔밥,순두부,김치찌개 ☎(062)269-7792</p>	<p>풍천민물장어</p> <p>북구 우산동 광주병원에서 2000모텔사이 양념구이,소금구이전문 대표 최정 ☎(062)267-7272</p>	<p>프로리아</p> <p>북구 일곡동 일산중학교 맞은편 중앙교회앞 패밀리리뷰,캐스트링,호텔식음료부페,홀센터 회합실,결혼피로연,철수연 단체모임 ☎(062)572-1200</p>
<p>임실49피자</p> <p>동구 소태동 무등중학교 정문입구 피자배달전문 세트메뉴 최고의 재료를 사용한 스페셜피자 ☎(062)233-4982</p>	<p>하늘샘탕전문점</p> <p>동구 소태동 무등중학교앞 추어탕,메기탕,메기찌개,오리탕,오리로스 대표 김귀숙 ☎(062)233-2253</p>	<p>화정광천수사우나</p> <p>북구 두암동 각하주공@정문앞 맞은편 맥반석찜질방 남,여 탕 사우나 이발관 최고경력자 운영 ☎(062)267-0606</p>	<p>김해영88백진원스스포츠아카데미</p> <p>남구 주월동 국제호텔 건너편 미니스4층 댄스스포츠,리듬,모던댄스,인사법,지역경쟁 지도자반,선수반,일일취미반 수시모집 ☎(062)431-1788</p>	<p>날으는청둥오리랑</p> <p>북구 우산동 현대@ 정문옆 농해서방한정해와함께오래된부엌이있습니다. 대표 정호 ☎(062)262-3027</p>	<p>서호실업</p> <p>동구 궁동 한미쇼핑4거리 이회빌딩406호 인터넷이동 및 신규가방시 상품42인치 TV 무료중정점전해번호이동및 신규시 시연중점 ☎(062)233-9789</p>
<p>TRY</p> <p>북구 양산동 롯데슈퍼센터 건너 란제리,언더웨어 대표 최정일 ☎(010)3602-7605</p>					

■ 광주일보 구독신청·배달·전담배포안내 (062)222-8111~8

지역	지국명	전화	배달구역	지역	지국명	전화	배달구역			
남부	남광	222-9440	학동, 운림동, 소태동, 지원동, 방림동(일부), 용산동, 원남동, 중심사	서구	북광	525-3761	운암동, 동림동, 신안동(일부), 임동(일부), 무등경기장			
	동남	222-9054	동평동, 장동, 서석동, 지산동(일부), 동구청, 한국통신 현대의대		신안	512-1732	신안동, 임동(일부), 중흥동(일부), 원산동, 신역안, 북광주전국			
	동부	225-6001	산수동, 지산동(일부), 중흥동(일부), 두암동(일부), 개림동(일부), 법원		양산	571-7858	양산동, 안계동, 용두동, 본촌동, 본촌공단			
	중남	222-1886	금남로 1-3가, 중진로 1-3가, 광산동, 공동, 대이동, 불로동, 황금동, 호남동(일부), 금동(일부), 남동(일부), 금남지하상가		오치	266-7801	오치동, 삼가동, 매곡동, 일곡동, 서산동, 일곡지구, 기계관고, 북부경찰서, 31시단			
	중동	224-6804	개림동, 중흥동, 우산동(일부), 산수동(일부), 대인시장, 광주교고, 유림(일부), 북동(일부)		용봉	522-7752	용봉동, 중흥동(일부), 전년대, 북구청, 전대후문			
중남	224-8212	금남로4-5가, 중진로4-5가, 대인동, 수기동, 호남동(일부), 북동(일부) 중급지하상가, 누운동, 유림(일부)	우신	512-8116	우산동, 중흥동(일부), 문흥동(일부), 무등동(일부), 무등도서관					
남부	남부	852-0175	방림동, 원림동, 금동(일부), 남동(일부), 봉산동(일부), 코일, 리안호전, 남광주시장	광산	944-0444	송정동, 소촌동, 신촌동, 우산동(일부), 도산동, 송촌동, 운수동, 안곡동, 남산동, 옥동, 허산동, 유계동, 광산동, 신막동, 신중동, 두정동, 한성, 동호동, 삼가동				
	봉선	875-6879	봉선동, 주월동(일부), 남부경찰서, 문성중고, 남구청	현단	973-2900	신성동, 신가동, 월계동, 비아동, 청년단지, 칠곡동				
	문흥	267-4748	문흥동, 오치동(일부), 문흥지구, 청신역 수련동, 각하동, 화곡(미)빌, 고도소	월곡	961-2338	월곡동, 우산동(일부), 신정동, 하남동(일부), 무진로변, 금호, 한성, 우미, 시영, 스위트				
				하남	951-1237	운남동, 장덕동, 하남동(일부), 효석동, 수암동, 도전동, 오산동, 하남공단				

모집

※총무 및 배달사원을 모집합니다.※
◆신분배달을 희망하시는 분은 해당지국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남·여(주부, 학생, 일반), 총무경력자 우대 -급료:상당 후 결정 -회차당 한기속사 제공